

엠파스, 사랑의 연탄 보내기



지식발전소(대표 박석봉)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엠파스는 메일 서비스인 '엠파메일'을 통한 '사랑의 연탄 메일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엠파스 직원들은 지난 11일 원주밥상공동체

(대표 허기복 목사)가 운영하는 연탄은행에 '사랑의 연탄메일 보내기' 캠페인을 통해 적립된 연탄 2만5000장을 기증했다. 엠파스측은 이용자들이 메일을 1통 보낼 때마다 1원씩을 적립, 원주밥상공동체에서 개설한 '연탄 은행'에 전달한다. 박석봉 대표는 "이 메일을 통해 불우이웃들에게 연탄을 전달하는 등 네티즌들이 쉽게 이웃 사랑에 나설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주성엔지니어링, 세계 최대 CVD 장비 개발

주성엔지니어링(대표 황철주)은 현재 건설 중인 LCD 기판 중 최대 사이즈인 2100x2300mm 급의 7세대까지 대응할 수 있는 플라즈마 화학증착장치(PE-CVD)를 개발 완료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는 경쟁사인 AKT가 최근 발표한 1800x2200mm보다 더욱 커진 것으로 국내 LCD장비 업체가 해외 경쟁사와 같은 시기에 진일보한 차세대 제품을 출시했다는 점에서 국내 LCD 및 반도체 장비산업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제품은 수율 저하 요인으로 지적돼온 플라즈마 소스원인 샤워헤드(Showerhead)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플라즈마 막 균일도를 높일 수 있는 신기술이 적용돼 품질 향상은 물론 유지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또한 핀 위치 주변에 증착 불량을 유발하는 리프트 핀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특징이다. 리프트 핀을 없애으로써 그동안 핀 때문에 불가능했던 하나의 유리 원판에서 다양한 제품(15인치~46인치)의 생산이 자유로워져 생산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주성 측은 설명했다.

디지털대상, 온라인서 새학기 학습 상담



디지털대상(대표 최진영)은 고교수험생들을 위해 서울대, 경북대 등 명문대 재학생 6인으로 구성된 'MiMac Club(마이맥클럽)'을 발족하고 수험생 상담활동을 나섰다.

'Club 게시판'에 수험생들이 학습계획이나 공부방법 등에 관한 질문을 올리면 6명의 대학 재학생들이 그에 대한 조언이나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답글 형태로 제공해준다.

'MiMac Club 상담'을 통해 지금까지 약 1000건 이상의 수험생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디지털대상 홈페이지 회원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시스폴, 3000억원 투자 유치



네트워크 통합(NI) 전문업체인 시스폴(대표 성기철)은 다국적 투자펀드인 골든 밀레니엄 에쿼티로부터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에 2억80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 지난 25일 자카르타에서 계약을 체결했다. 국내 벤처업체가 동남아 국가에서 30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투자 유치는 시스폴이 인도네시아 국영전화회사인 텔콤(TELKOM)과 공동으로 추진중인 HFC망 구축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형식으로 조건은 IMF체제하에 있는 인도네시아의 경제 상황을 감안, 연 6%의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시스폴은 2002년부터 인도네시아 텔콤과 10년 동안 수익을 공동배분하는 형태로 HFC망을 통한 전화, 초고속인터넷, 케이블TV 사업을 진행중이며 지난해에는 북 스마트라섬의 메단시에 HFC망을 구축, 서비스를 시작해 향후 3년간 인도네시아 14개지역에 102만 홈 패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스폴은 구축기간 3년을 포함해 향후 13년 동안 20억 달러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넷피아, 다국어 인터넷주소 서비스 불가리아서도 오픈

Netpia

넷피아닷컴(대표 이판정)의 다국어 인터넷주소 서비스가 3월부터 불가리아에서도 본격 시작된다. 해외에서 넷피아닷컴의 다국어 인터넷주소 서비스가 정식으로 시작한 것은 태국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넷피아닷컴은 서비스 오픈에 맞춰 3월 중순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에서 불가리아의 유력 인사와 관계자들을 초청, 다국어 도메인 서비스를 소개하고 서비스 개통을 기념하는 행사를 대대적으로 가질 예정이다. 이번에 서비스되는 넷피아의 다국어 도메인 서비스는 불가리아의 교육망을 관장하고 있는 IST 파운데이션과의 제휴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이 서비스를 통해 불가리아의 교육 기관은 영어 도메인 대신 불가리아에서 사용하는 키릴 문자를 이용,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게 된다.

넷피아는 이번 불가리아 자국어 도메인 서비스를 시작으로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각 지역에 자국어 도메인 서비스 영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빛소프트, 온라인게임업체 변신 선언



한빛소프트(대표 김영만)는 '온라인게임 포트폴리오 2004'를 발표하고 패키지게임 유통업체에서 온라인게임 전문업체로 전환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에 앞서 한빛소프트는 지난 17일 자체 개발한 온

라인게임 업데이트 버전인 '탄트라 V2'를 공개한데 이어 앞으로 대규모 업데이트를 단행할 예정이다. 또 엔트리브소프트가 개발한 캐주얼게임 '팡야'에 투자해 오는 4월경 시범서비스에 들어간다.

김영만 한빛소프트 대표는 "지금까지 패키지 게임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으나 올해를 전환점으로 전문 온라인게임 개발업체로 자리매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한빛소프트 개발팀에는 '포트리스2'를 개발한 '마르스팀'이 참여, '네오스팀'이라는 온라인게임을 상반기에 공개할 예정이며 '그라나도 에스파다', '화랑' 등의 온라인게임도 개발할 예정이다.

안철수연구소, 소프트웨어사업자 대상



안철수연구소(대표 안철수)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선정하는 국내 최고의 소프트웨어기업으로 선정됐다. 안철수연구소는 지난 19일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개최된 '제3회 대한민국 소프트웨어사업자대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소프트웨어사업자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3회를 맞는 이번 시상에서 최우수상에는 인지소프트와 티맥스소프트, 경영상 수상자로 유비케어가 선정됐으며, 소프트웨어고객 만족도상 부문에서는 시큐어소프트가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컴텍코리아, FASHION & BRAND 사업 본부 신설



컴텍코리아(대표 노학영)는 지난 해 KIPLING KOREA(키플링 코리아) 영업양수를 체결하고, 이 사업을 위해 F&B 사업본부를 신설했다.

KIPLING(키플링)은 벨기에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적인 가방브랜드로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실용적이면서 패셔너블한 캐주얼가방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컴텍코리아의 F&B 사업본부 신설은 안정된 재무구조를 구축하고, 사업다각화를 꾀하여 제2의 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영전략의 일환이다.

향후 F&B 사업본부는 키플링 브랜드 가방뿐 아니라 라이선스를 통한 자체 의류라인을 런칭하여 캐주얼 토탈브랜드로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다.